

2020 겨울호 (Vol. 46)

서신원

서울성경신학대학원대학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눅 2:11

계간 서신원 2020년 4(겨울)호, 통권 46호

발행인 현유광 | 편집인 장석조 | 창간일 2010년 9월 9일 | 발행일 2020년 12월 7일

발행처 서울성경신학대학원대학교 출판부 | 주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14가길 45-1

전화 02-845-7711 | 홈페이지 <http://www.sb.ac.kr>



서울성경신학대학원대학교
SEOUL BIBLE GRADUATE SCHOOL OF THEOLOGY

우리에게 주어진 표적



총장 현유광

성탄절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성탄절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기쁨을 주며 따뜻함을 느끼게 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을 모두가 기뻐하고 서로 “메리 크리스마스”하며 축하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저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 너무 크고 많습니다. 그래서 11월 말이 되면 마음이 조금씩 들뜨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심은 모든 사람에게 큰 기쁨이 되는 좋은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 대하여 원수 노릇하던 우리 죄인들에게 평화의 소식이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승산(勝算)이

도무지 없는 하나님과의 싸움 가운데 두려움과 괴로움과 아픔과 슬픔 가운데 살아가던 우리에게 용서와 위로 그리고 회복의 기쁜 소식이 선포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크리스마스는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날입니다.

저는 저에게 있는 모든 불행과 괴로움이 나의 죄로 말미암았음을 인정합니다.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인들을 위해 하나님은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고, 평화와 화목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 주셨습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싸여 구유에 누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하더니
누가복음 2:12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 공의 그리고 사랑을 분명하게 증거하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심은 신비(神祕)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신비란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는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사건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보여주는 신비한 사건들은 왜 그 일이 일어나야 했는지가 확실한 사건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뚜렷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그래서 죄를 묵과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심판하시고 벌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값을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갚아주셨습니다.(갈3:13)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으시고 죽으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나를 사랑하심을 온전하게 증거하십니다. 할렐루야!

저는 하나님이 그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버려두셨다는 생각을 하면 “성부 하나님이 너무하신 것 아닌가?”하는 질문이 마음에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0:18 말씀을 통해서 답을 찾았습니다. “이(예수님의 목숨)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성부(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성자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순종하심으로써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세상에 오신 메시아 예수님은 베들레헴의 한 짐승들의 우리에 있는 구유에 강보에 싸여 누이셨습니다. 이것이 구원자가 세상에 오신 표적(sign)이었습니다. 강보에 싸여있다는 말씀을 보면 이사야 6장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높은 보좌로부터 주님의 옷자락이 성전까지 이르러 가득 채워져 있는 광경을 이사야는 보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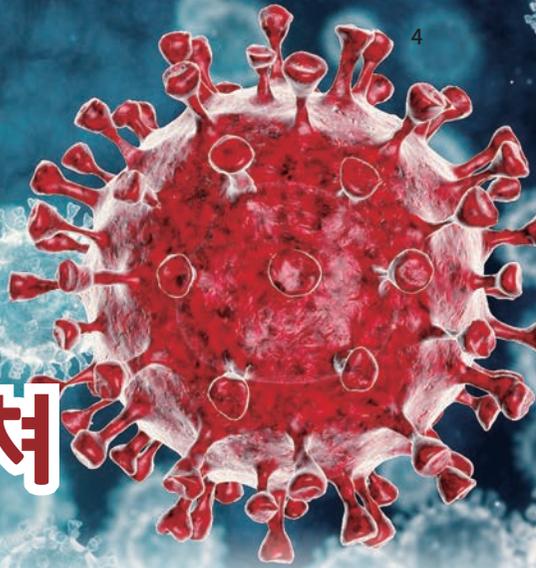
옛날에 옷은 매우 비쌌습니다. 그래서 이 광경은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손바닥 만한 강보에 싸여 구유에 누여계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가난해지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궁궐에서 출생하셨다면 귀족들이나 그 왕자를 알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구유에 누이셨기에 마음이 겸손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구세주께 경배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유에 출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겸손한 마음을 가진 모든 사람이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성탄절에도 예수님께 경배하며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자유함과 영생의 복을 더 풍성히 누리는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땅에는 평화

코로나 사태에 부쳐



이동영 교수 (Dr.theol. 본교 조직신학. 도서관장)

주일성수의 중요성

요즘 코로나19사태를 경험하면서 저는 신학교수로서 자괴감을 느낍니다. 코로나가 창궐하니 미세먼지가 사라지고 도심의 공기가 맑기만 합니다. 인간이 노동활동을 중단하고 공장이 돌아가지 않으니 지구 온난화도 살아가져서 오존층이 복원되고 북극과 남극에서 지구 온난화로 인하여 녹아내리던 빙상이 급속도로 복원되어가고 있으며, 그로 인하여 남극과 북극의 생태계가 급격하게 회복되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주일에 한번만 인간이 노동을 중단하고 땅을 쉬게 하고 동물과 식물을 쉬게 하고 자연만물을 쉬게 했다면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계가 이렇게 망가져서 그 수많은 생명들이 생존의 위기에 몰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출20, 8)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코로나19의 위력이 훨씬 더 대단하다 싶으니, 제가 왜 신학 공부해서 신학 선생이 되었나? 이런 자괴감이 듭니다. 신학교수보다 코로나가 더 권

위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니 참 마음이 안 좋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19사태를 겪으면서 인간이 얼마나 무도하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만물을 어렵고 힘들게 했는지도 반성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신 이유 가운데 중요한 이유 한 가지는 일주일에 한번 인간이 모든 노동을 중단함으로써 이 세계의 주인이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겸손하게 인정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인간이 노동을 중단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이 세계는 하나님의 창조질서 가운데서 잘 움직이고 운행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위기를 느끼는 것은 인간이지 자연만물이 아닙니다. 인간이 이 세계를 생각하고 평소에 일주일에 한번만이라도 하는 일을 중단하고 땅과 동물과 하늘과 바다를 쉬게 해 주었더라면 지구는 이렇게 병들지 않았을 것이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가 이렇게 병들고 고통당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일주일에 한번 노동을 중단하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가 아니라 코로나로 인하여 노동을 멈춘 이

상황 가운데서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은 성찰과 반성과 뉘우침이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던 그리스도인들이 코로나의 권위 앞에서 꼼짝 못하는 이러한 사태를 목도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뉘우치는 마음이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주일을 성수하는 일, 주일 날 나와 관계하는 모든 것들을 쉬게 하고, 성 삼위일체 하나님께 나아가 이 세계와 만물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겸손히 고백하며, 이 세계와 만물의 ‘창조주’(Creator)이신 성부 하나님과 이 세상의 ‘구속주’(Redemptor)이신 성자 하나님과 우리와 만물을 거룩하게 하시는 ‘성화주’(Sanctifier)이신 성령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일인지를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대한 새로운 이해 - 말씀과 성만찬은 참된 교회의 표지이다!

끝으로 이번 코로나 사태에 즈음하여 예배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원래 개혁교회에 있어서 ‘참된 교회의 표지’(notae verae ecclesiae)는 ‘말씀’과 ‘성례전’입니다. 말씀이란 말씀선포를 의미하고 성례전이란 세례와 성만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참되게 선포되고 성례가 올바르게 집행되는 곳에 참된 교회가 존재하고 참된 예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설교와 성만찬은 예배를 구성하는 두 개 기둥입니다. 칼빈(J. Calvin)이 강조했듯이, 설교가 없는 예배도 문제이지만 성만찬이 없는 예배도 문제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성만찬 없는 예배에 너무 익숙해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19사태 속에서 교회가 주일예배를 비대면으로 드리는 상황 가운데서 많은 목회자들이 빠져있는 고민은 온라인을 통해서 편하게 예

배를 드리는 것을 경험한 교인들이 이번 사태가 지나가고 과연 몇 퍼센트나 다시 교회로 복귀 하겠느냐(?)에 대한 염려입니다.

왜 이런 염려가 생길까요? 성례(성찬)가 없는 예배를 너무 당연시하는 한국 교회의 현실이 이러한 문제를 불러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만약 말씀선포와 성만찬이 함께 있는 예배가 온전한 예배라는 것을 신자들이 명백히 의식하고 있다면, 지금 코로나사태 속에서 드리는 온라인 예배를 신자들은 불완전한 예배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냥 비상사태에서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없으니, 임시방편으로 드리는 온라인 경건회 정도로 말이지요. 그런데 성만찬이 없는 예배에 평소부터 너무 익숙하다보니 온라인에서 설교를 청취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예배라고 신자들이 생각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코로나사태가 지나가고 나서 오프라인 상에서 예배가 개최되었을 때 얼마나 많은 신자가 다시 예배로 복귀할 것이냐에 대해서 우리는 염려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지요. 본립도생(本立道生)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본을 바르게 세워야 길이 보인다는 뜻입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한 교회 공동체의 위기를 목도하면서, 우리는 왜 우리 교부 칼빈이 참된 교회의 표지를 말씀과 성례로 규정했는지를 가슴 아프게 확인하고 있는 것이지요.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근본을 바로 세우고자하는 노력을 기울여야만 합니다. 그것은 곧 참된 교회의 표지인 말씀과 성례를 반듯하게 세우는 예배를 시급히 확립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선포가 없는 예배를 상상할 수 없듯이, 성만찬이 없는 예배 또한 상상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즉 하나님의 말씀과 성만찬이 올바르게 시행되는 예배를 회복할 때-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지금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 공동체로서의 교회의 근간은 결코 흔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창대교회



담임 김동민 목사(순장 총회장)
서울 구로동로 28번지

금번 서신원에서 저희 창대교회를 소개해 달라고 연락을 받았습니니다. 짧은 지면을 통해 교회의 모든 부분을 다 소개하지는 못하지만, 질문형식으로 간략하게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창대교회는 언제 어떻게 세워지게 되었습니까?

창대교회는 현재 58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교회로서 1962년 2월 11일 덕천교회(현: 동천교회) 제 4차 복음전도회에서 구로동에 교회를 개척 설립할 것을 가결하고, 1962년 3월 11일에 진상훈 집사(창대교회 제 1대 원로목사)와 남녀 집사와 남교사들이 구로구에 파견되어 오운영씨 덕에서 구천교회(현: 창대교회) 간판을 걸고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담임목사로 3명이 사역을 하게 되었는데, 1대 목사님은 진상훈 목사님이시고, 2대 목사님은 정병기 목사님이시고, 제가 2004년에 후임목사로 부임하여 현재까지 3대 목사로 열심히 섬기고 있습니다.

창대교회의 비전선언과 사명선언은 무엇입니까?

창대교회는 2020 비전을 가지고 있는데, “새예배당 건축의 비전, 2000명 믿음의 공동체의 비전, 200명 평신도 지도자와 교사의 비전, 200개 소그룹의 비전, 20개 지교회 설립의 비전”입니다. 창대교회의 사명선언은 “우리는 예배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소그룹 제자훈련으로 성숙하며, 복음전파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며, 각자의 은사로 교회와 세상을 섬긴다”입니다. 이 선언은 주로 매해 교회표어 현수막을 만들때 표어 밑에 “예배, 소그룹, 복음전파, 섬김”이라는 약어로 기록해 교우들로 하여금 늘 기억하게 하도록 합니다. 창대교회의 사명선언은 비전선언을 성취하는 구체적 방법이자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창대교회가 비전과 사명을 성취하기 위해 집중하는 사역은 무엇입니까?

2020 창대비전과 사명을 성취하기 위한 방법은 제자훈련과 소그룹 모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전과 사명은 성도들의 헌신을 통해 성취되기 때문에 무엇보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되어 성숙해야 하고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상호 연대감을 가져야겠기에 제자훈련과 소그룹 모임을 지속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창대교회는 사람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고(전도), 인도받은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양육하고(양육) 양육된 사람을 말씀으로 훈련시켜(훈련) 제자사역에 동참하게 하는 일(파송)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담임목사의 목회철학은 무엇입니까?

저의 목회철학은 가능한 “주님의 목회방식을 따르는 것”으로 삼고 있습니다. 목회가 내 목회가 아

니고 주님의 목회이며, 내 양이 아니라 주님의 양이라면 철저히 큰 목자되신 예수님의 방식을 따르는 것이 제가 해야 할 일로 보입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 제자들을 잘 양육하고 훈련시켜 세상으로 파송해 보내는 일을 목회방향으로 보고 목회하고 있습니다. 예배와 섬김은 마태복음 22:37-39에서 말씀하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근거를 두고 목양하고, 전도(선교)와 교육(양육)은 마태복음 28:18-20에서 말씀하신 지상대 사명에 근거를 두고 목회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짧은 지면을 통해 58년된 우리 창대교회를 간략하게 소개했습니다. 창대 비전은 완전하게 성취되지 않았습니니다. 그러나 여전히 창대 공동체는 기도하며 소망하며 비전을 향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명도 아직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니다. 아마 이 땅에서 영원히 이루어지지 않을지도 모릅니니다. 그러나 창대교회는 여전히 아니 어쩌면 주님 오실 때까지 “예배, 소그룹, 섬김, 복음전파”라는 사명을 향해 나가게 될 것입니니다.

주님 오심을 대망하며, 완전한 교회의 본질 회복을 위하여, 완전한 교회개혁을 위하여

코로나19 사태와 예배

강영숙 교수(본교 사회복지학 교수)



세계는 코로나바이러스 2019(Corona Virus Disease 2019, 이하 “코로나19”로 통일함)로 인해서 충격 속에 빠져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의하여 ‘팬데믹’(Pandemic)이 선언될 정도로 코로나19는 종교, 정치, 경제, 과학을 망라하고 그동안 인류 사회가 당연하게 여겨왔던 일상(normal)의 시계를 “포스트 코로나”(post-Corona)로 돌려놓았다.

이러한 상황 속에 한국교회 성도들의 신앙심을 위해 새롭게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온라인 예배는 교회출석 안 하고 신앙생활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교회중심이 아닌 개인중심으로 탈기독교 방향으로 가고 있다. 교회라는 공동체공간이 위축되어지고 외형적인 측면보다 내적인 측면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상황에서, 불특정 다수의 모임은 위험하고 신뢰있는 소수의 모임이 안전하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한국교회나 성도들이 코로나19 시대를 새로운 정상(new normal)의 상태로써 파악하며, 성도들을 위한 한국교회의 예배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하고, 나아가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교회로서의 가치를 지닐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먼저, 온라인 예배는 몇 가지 본질적인 결함이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온라인 예배는 ‘예배의 공동체적 성격’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예배는 근본적으로 공동체적이어야 한다. 둘째, 온라인 예배의 문제점은 그것이 ‘예배의 경축적 성격’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점으로 예배는 근본적으로 주님 부활의 경축이며 천국을 미리 맛보는 종말론적 잔치로 본다. 셋째, 온라인 예배의 문제는 인간이 예배에서 맡은 역할이 찬양과 감사와 간구 그리고 고백 등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제언은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둘째, 대상자별 온·오프라인 예배시스템을 구축하여 맞춤형교를 다양화해야 한다. 둘째, 신앙성숙을 위한 매체를 개발하고 교회공동체 내부자들과 교회 밖 사회 성원들을 연결하는 도구가 필요하다. 셋째, 교회가 지역사회의 희망이 될 수 있도록 돕는 기독교 리더십이 필요하며, SNS를 통한 선교는 반드시 오프라인 선교가 병행되어야 한다. 넷째, 교회의 적극적인 투자를 통하여 온라인 예배를 위한 좋은 교사와 상담사를 양성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21세기의 성도들은 복음의 효과적인 전달을 위한 의무자로서 온라인 예배를 연구하고, 이를 통해 새롭게 복음을 알리는데 쉽게 세상에 전달하는 번역자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며, 이를 위한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학교를 마치며



Ph.D. Cand., 상담전공, 정애숙

살롬^^ 하나님을 더 알게 하고 더욱 알리 자로 살아야만 하는 정체성과 포기할 수 없고 타협할 수 없는 큰 가치를 깨우쳐 준 본교와의 인연은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강의하면서 시작되었다. 병약한 몸으로 상담학 석·박사 과정에 입문 후 박사논문을 패스하게 된 것은 오롯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음을 고백한다. 이 6년의 시간은 마치 조정경기 같았다. 결승점(미래)을 향해 노를 저어가지만 결승점에 등을 돌리고 시작하는 조정경기처럼 볼 수 있는 것은 단지 지나온 길의 흔적들이었다. 그 길에 선명하게 새겨진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인도하심을 맛보아 알게 하신 은혜가 크다. 교수님들의 가르침을 마음판에 새기며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사랑을 들고 믿음의 노를 저어 갈 장래에도 그렇게 선하게 인도하실 성삼위 하나님께 감사한다. 지도해 주신 교수님, 섬겨주신 직원분들, 기도와 정성, 후원해주신 교단의 고마운 분들께 마음 담아 감사드립니다.



MA 과정, 이호정

저는 의류학 전공 대학교수로, 정년퇴임을 한 후에 하나님을 영접하고, “어! 성경이 읽어지네” 전문 강사로서 말씀을 전하다가, 성경을 제대로 공부하고자 서울신학대학원대학교에 입학하였습니다. 서신원의 운영이 신앙과 말씀연구로, 학생중심, 훌륭한

한 교수진, 순수 신학과 목양과 사역중심의 체계적인 교육과정에 감동받으며, 공부하고 있습니다. 재학생 역시 현재 목회자이거나 지망생들이므로 말씀과 경건을 추구하는 학습 분위기도 만족스럽습니다. 서신원에서 신학과 진리를 공부하도록 불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경건과 학문의 만남으로, 계속해서 다음 과정(PhD)도 공부할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을 허락해 주실 것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MDiv 과정, 아마르자르갈

(학교에서 불리는 애칭 아마)

안녕하세요. 저는 몽골에서 온 두아이의 엄마 아마르자르갈입니다. 3년 동안의 공부를 무사히 마치고 드디어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3년 동안 힘들고 어려운 일도 많았지만 그보다 행복하고 감사한 일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좋은 기억을 남기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셨던 장식조 교수님의 말씀이 기억에 남습니다. 외국에서 와서 아는 사람도 없고 힘든 점도 많았지만 좋은 선배님과 후배들, 그리고 너무나 잘 챙겨 주시던 교수님들 덕분에 너무나 즐겁고 행복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교수님들 대부분이 외국에서 공부를 하고 오셨던 경험이 있으셔서 그런지 저희 입장을 너무나도 잘 이해하고 계셨습니다. 이렇게 글을 쓰다보니 함께 기도하고 찬양했던 일, 함께 먹었던 맛있는 음식들, 상쾌한 바람을 맞으며 했던 야외 수업 등 너무나도 좋았던 장면들이 하나씩 떠오릅니다. 그리고 외로운 저를 항상 걱정해주시고 보살펴주시던 분들의 얼굴이 한분씩 떠오르네요. 저를 도와주셨던 모든 분들 덕분에 행복하고 즐거운 기억들 가득 안고 3년간의 공부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모든 교수님과 선배님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MDiv 과정, 빌해**

안녕하세요. 저는 몽골에서 온 빌해 전도사라고 합니다. 저는 2017년부터 안산 온누리 몽골 예배에서 전도사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2018년도에 서울성경신학대학원대학교에 입사하고 공부하는 것에 대해 매우 감사하고 기쁩니다. 지난 3년 동안 훌륭한 교수님들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많은 것을 배우게 돼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서울성경신학대학원대학교 모든 학생들, 교수님들, 직원 분들 그리고 총장님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던 놀라운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MDiv 과정, 김경태**

지난 3년간 하나님의 은혜로 학업을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리고 선지학교에서 훌륭한 교수님들 밑에서 배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개인적으로는 일과 병행하는데 있어서 3년이라는 시간동안 목회자를 양성하는 목회학 석사과정의 모든 학업을 소화하기가 쉽지 않았고 아쉬움도 많이 남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부분은 개인이 성경과 학문에 시간을 할애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3년간 배우면서 아직도 인격이 잘 안다듬어진 자신의 모습과 순간순간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할 때 너무 부끄럽게 느껴졌고, 다시 처음부터 해야 하나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이제 졸업을 앞두고 있는 지금의 시점에 하나님의 선하신 길을 구하며 하나님 나라와 의에 합당한 도구가 되길 구하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3년간 여기까지 도우신 에벤에셀의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애쓰시고 수고하신 총장님과 여러 교수님들께 감사드립니다.

 **MDiv 과정, 김태순**

어느덧 졸업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지난 3년을 돌아보니 지금의 코로나 시대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즐겁고 행복한 추억들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교수님들과 원우들과의 교제가 너무 중요한데 지금은 홀로 공부하는 것 같아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가까이하면서 학업에 최선을 다하여 남은 시간들 행복하고 즐겁게 보내시길 바란다. 지난날 교수님들의 가르침과 원우들과의 나눔의 시간들을 통해 함께 할 수 있었음을 감사드리고, 서울성경대학원대학교를 소개해주신 장석조 교수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은혜로 졸업을 하게 되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MDiv 과정, 이용현**

처음 신대원에 입학하며 고민도 많았지만 제겐 자격이였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어 두렵고 떨리면서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교수님들의 열정적인 가르침에 감사드립니다. 비록 저의 부족함에 아쉬움이 크지만...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진리를 깨닫는 기쁨은 저에겐 도전과 다짐의 시간이었습니다. 어느덧 졸업을 앞두고 다시금 처음 마음을 다짐해 봅니다. 부르심에 응답하는 믿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말씀에 게으르지 않고 머물지 않는 사람으로 교회와 이웃을 섬기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 시대의 신학교 경건회

아홉 번째 경건회

2020년 2학기 아홉 번째 경건회가 10월 27일(화) 오전 11:20부터 305호 강의실에서 있었습니다. 본교 이사장이신 위거찬 목사께서 오전9:19 말씀을 본문으로 특강식 설교를 해주셨습니다. “마르틴 루터의 의인론 재고”라는 제목과 “『그리스도인의 자유』(1520)를 재해석하다”라는 부제로 설교하셨습니다. 503주년 종교개혁기념일이 가까운 때 시의적절한 말씀을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설교의 개요는 아래와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yYGSmhb2hjc>



1. 자유로운 군주 봉사하는 중
2. 신앙을 통한 그리스도와의 영혼의 합일
3. 교환(交換)과 수수(授受)의 관계
4.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본질과 윤리
5. 역대응적인 수여의 관계와 신앙의 윤리
6. 기쁜 교환과 초과의 논리

열번째 경건회

2020학년도 2학기 열번째 경건회가 11월 3일(화) 오전 11:20부터 305호 강의실에서 있었습니다. 장석조 교수님께서 인도하시고 설교해주셨습니다. 장 교수님은 히브리서 9:23-28 말씀을 본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죄 용서함의 은혜를 증거하셨습니다.

열한 번째 경건회

2020학년도 2학기 열한 번째 경건회가 11월 10일(화) 오전 11:20부터 305호 강의실에서 있었다. 최순봉 교학처장의 인도, 이재성 목사님의 설교로 진행되었다. 이재성 목사님은 요한복음 5:1-9 상반절을 본문으로 말씀을 증거하셨다.

열두번째 경건회 니카라구아 선교사 김기선 목사님



열두번째 서신원 경건회에는 특별한 설교자를 모셨습니다. 중앙아메리카 니카라구아에서 약 15년간 섬겨오신 김기선 선교사님입니다. 김 선교사님은 우리

주님의 대위임령인 마태복음 28:18-20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셨습니다. 아울러 니카라구아에서 활발하게 하셨던 선교사역을 보고해 주셔서 선교의 열정을 새롭게 해주셨습니다.

NEWS



서신원 동정

- 이사장 위거찬 목사님은 11월18일(수) 교수들과 직원들을 구로실라스테이 카페에 초대해서 위로와 격려를 해주셨습니다. 교수들과 직원들은 오랜만에 풍성한 식탁을 앞에 놓고 만찬과 담소를 나누었다. 귀한 자리를 마련해주신 이사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 학교 환경정리 : 안전 및 미관을 위해서 인접 보라매공원 나뭇가지를 정리, 야간 경관전기시설을 보수하였습니다.
- 학내 인터넷 망을 재정비하여 불필요한 서비스를 해지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고성능 서버 라우트 시스템을 새로이 구축하였습니다. (건물 각층 및 강의실 무선통신망 교체 등) 이를 위해 허인구 대표 (풀선 이노베이션)께서 헌신적으로 수고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신입 직원 소개 기획행정처 이승훈 (2020.9.15 입사)



동천교회에서 안수집사로 노래는 못하지만 2부예배 임마누엘찬양대와 오후 찬양예배 여호수아 찬양대를 섬기고 있으며, 재무감사 부부장, 선교팀 국내&해외 선교부장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가족을 소개하면 사랑하는 아내 김찬주와 7급 군무원 만이아들, 회사원 둘째 아들, 간호사인 막내딸 이상 2남1녀의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회사업무경력에는 대기업 26년을 포함해서 약35년 동안 재경, 기획, 인사총무, 관리부문의 일을 해 왔으며, TAT 1급 자격증 소지하고 있습니다. 서신원의 일원이 되게하여 주셔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서신원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경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되는데 작은 씨앗이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NEWS



제68회 총회

제68회 총회가 2020년 10월 20일 안천교회에서 개최되었다. 다음과 같이 신임총회장과 임역원을 선출되었다.



- 회장 : 김동민 목사(창대교회 / 중부)
- 부회장(목사) : 서정환 목사(안천교회 / 남부)
- 부회장(장로) : 김종후 장로(신원예담교회 / 남부)
- 서기 : 조병희 목사(진잠제일교회 / 남부)
- 회록서기 : 김우중 목사(영암 / 동부)
- 회계 : 최명철 장로(성산 / 남부)
- 부회계 : 최한이 장로(동천교회 / 동부)

신임총회장 김동민 목사(창대교회)는 다음과 같이 인사말과 비전을 제시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에베소서)(삼상 7:12) 사상 초유의 코로나 19라는 질병 때문에 불안과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제 68차 총회에서 다시 한번 회장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감사하면서도 시대적 사명과 책임을 무겁게 느끼고 있습니다.

첫째, 교회 연합 운동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연합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연합이 없이는 아무 것도 할 수도 이룰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목회자와 장로의 연합과 협력은 그 어느 때 보다 더욱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목회자와 장로가 서로 신뢰하며 각각 고유의 직무를 존중하고 세워주고 서로 협력하면 소속교회와 노회 및 교단을 굳게 세우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둘째, 교회의 사명에 집중하기를 소망합니다. 혼란스러운 시대입니다. 정치와 사회 속에서 도덕적 기준이 모호해졌습니다. 성경에 도전하고 교회의 신앙을 위협하고 기존 남녀 정체성을 왜곡시키는 차별금지법 입법화를 시도하려고 있습니다. 일부 큰 교단의 금품선거, 대형교회들의 세습, 일부 목회자들의 도덕적 윤리적 일탈로 교회가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교회는 흔들리지 않고 위축받지 않고 교회 본연의 사명에 집중하고 매진해야 합니다.

셋째, 교회의 공공성을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 19의 상황 속에서 교회는 공공성에 대한 시험을 받고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코로나 19의 불안과 두려운 상황은 교회의 신앙을 유지하는 도전과 공공성 확대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지금의 상황 속에서 교회는 반사회적 단체로 오해받을 수도 있고, 공공의 유익을 위한 절대적 필요 기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총회 산하 모든 지교회가 폐쇄적, 소극적, 부정적 자세를 지양하고, 적극적, 능동적, 열린 자세로 대처해 세상의 소망과 선망의 대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도서관 소식

http://lib.sb.ac.kr/



▶ 도서관 홈페이지에 전자자료 이용안내 게시

- 도서관 홈페이지 ☞ 전자정보 ☞ 전자자료이용안내
- e-article 및 RISS 이용안내(반드시 도서관 홈페이지 로그인 후 이용가능)

▶ 2020년 도입(2021년 서비스) 대학라이선스 구독 신청

- Wiley Online Library(KERIS-Wiley Collection) 외 38종 중
- "국고100% 지원" 품목 구독 신청(15개 공급사 신청)

▶ 기증도서

■ 우수학술도서(교육부-대한민국학술원) - 320책



■ 이재성 목사 - 217책

- 서울성경신학대학원대학교 교수 (신약신학, 초빙교수)
- 동천교회 담임목사

■ 고(故) 전재영 목사 - 187책

- 1969-1971년 영암교회 시무
- 동천교회 목사



신간도서 안내(10-11월)

칼빈핸드북 / 헤르만 셸더하우스

장로교기본교리 / 김광열

재난과 기독교의 본질 / 서형섭

예배의 창문을 열라 / 최성은

개혁교의학 2 / 헤르만 바빙크

개혁주의 인간론 / 안토니 후크마

니체 - 그의 삶과 철학 (특별보급판)

/ 레지날드 J. 홀링데일

니체의 위험한 책,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 고병권

다시 출추기 시작할 때까지 / 월터 브루그만

발달심리학 / 성현란

소예언서 어떻게 읽을 것인가 3 / 김근주

송영의 삼위일체론 / 이동영

코로나 이후의 세계 / 제이슨 쉐커

판넨베르크 조직신학 3 / Pannenberg, Wolfhart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 종교 지평 / 이명권 외2

하나님 나라와 언약적 관점으로 보는 성경신학

/ 전정구

하나님과 팬데믹 / 톰 라이트

헤르만 바빙크의 기독교 세계관 / 헤르만 바빙크

기부금 내역

2020.09.01 ~ 2020.11.30

서울성경신학대학원대학교는 여러분의 소중한 기도와 후원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후원금액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신원사랑

서울성경신학대학원대학교는 여러 후원자님들의 기도와 헌금에 힘입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난 11월말 기준으로 108분의 개인 후원자와 춘천교회를 포함해서 4교회 2노회 그리고 순장연합 전도회를 비롯한 3기관이 서신원사랑 후원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총 200명의 개인 후원자가 서신원사랑 후원에 동참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아래 정기후원 참여방법을 참고하셔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기후원 월 1구좌 단위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기본 1구좌 = 월 5,000원, 10구좌 = 월 50,000원) 기한은 1년 또는 원하시는 대로 자유롭게 정하시면 됩니다. 후원해주시고자 하는 분들께서는 (070)-7169-4100 손계속 팀장에게 오전 10-12시, 오후 2-5시 사이 전화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특별후원 국민은행 040001-04-167081 (예금주: 서울성경신학대학원대학교), 농협은행 301-0043-7048-11 (예금주: 서울성경신학대학원대학교) 계좌로 후원하고자 하는 금액을 송금하신 후 (070)-7169-4100으로 후원 목적을 알려 주시면 됩니다.



이석중 장로 3,000만원 후원

동천교회 출신으로서 캐나다에 거주하시는 이석중 장로께서 서신원을 위해 3천만원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개인	김병호	박소순	오미경	이용대	정보원	최옥례	교회 및 단체
강미랑	김병희	박순자	우윤해	이주철	정복희	최주창	연합전도회
강미영	김선동	박순희	위용찬	이준호	정선녀	최택규	동인교회 권사회
강영숙	김선성	박시현	유승인	이혜순	정성기	최한이	동천교회
강화순	김선종	박영복	유현희	임용태	정은희	한재화	- 유니게선교회
고명성	김성희	박영선	윤석연	임진화	정정희	현나영	남부노회
공인애	김승희	박영심	윤성자	장명분	조경희	현소영	중부노회
구희원	김영애	박예순	이경아	장석조	조순애	현유광	동천교회
권지영	김윤재	박지호	이동영	장영철	조영철	현윤재	신원예담교회
권태연	김은태	박천수	이명순	장인성	진민우	황기연	춘천교회
권태영	김준모	서상국	이상구	장임순	차명란	황태근	해맑음교회
길기한	김진환	손계속	이석원	전계현	최경림	황희자	
김강호	김현숙	신은주	이성매	전양순	최손생	(무기명)	
김광자	나성엽	심은혜	이세진	전웅현	최수연	1학기	
김군자	나재근	안춘희	이영순	전충현	최순봉	히브리어	
김남희	남분식	안현만	이예찬	정미경	최영숙	수강자	

당신은 하나님의 Visioner입니다.

서울성경신학대학원대학교

2021학년도 신.편입생 모집(2차)

복음은 위로와 함께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힘을 내십시오

◆ 모집과정 및 수업일 안내 ◆

※ 각 과정에 관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과정	모집 분야	과정별 수업연한	인원
신학과정	- 성경주해(주,야), 구약학, 신약학, 조직신학 (Ph.D, Th.M & M.A - 월요일, 주간)	Ph.D - 3년 Th.M & M.A - 2년	0명 0명
	- 목회학 석사(M.Div - 월, 야간, 화&목(주, 야간)	M.Div - 3년	0명
	- 상담전공 (M.A 목요일, 주간) - 사회복지전공(M.A 화 / 목, 야간)	M.A - 각 과정별 2년	0명

■ 모든 강의는 줌(Zoom)을 이용하여 어디서나 실시간 온라인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원서접수 : 2021년 1월 18일(월) - 2월 23일(화)까지
전형일시 : 2021년 2월 25일(목)요일
전형방법 :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의 일환으로
 대면 또는 화상통화로 면접

